

일본 한국문학사에 나타난 항일문학과 친일문학 기술양상*

손 지 연

(경희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가운데 항일문학, 친일문학 기술 부분에 주목하여, 항일과 친일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집필된 본격적인 한국근현대문학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보다』와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이며, 여기에 동시적 시와의 문학사 저술은 없지만, 한국근현대문학 일본인 연구자의 최전선에 자리하는 오무라 마스오의 인식을 시야에 함께 넣어 조망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에는 ‘친일문학’이라는 프레임이 매우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관점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며, 기본적으로 남한문학사의 서술체계에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평가 부분에 이르러서는 남한문학사와 분기점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서술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이나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의 한국 학계의 평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방식의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한국 학계에서는 김종한, 이석훈 등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한다든가, 반대로 한국 학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광수의 친일적 요소는 크게 중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그러하다. 셋째,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갖춘 작가나 일본어 창작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장혁주, 김사량, 이석훈, 김용제 등을 동일한 ‘일본어 문학’이라는 자장 안에 녹여냄으로써 각기 다른 친일의 내적 논리를 희석시켜 버리는 한계를 노정한다. 넷째, 김종한이나 이석훈에게서 이광수, 장혁주, 김용제 등 노골적인 친일 협력 문인들과는 다른 내면을 읽어내고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5939).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들은 보다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으로 후속 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주제어 : 오무라 마스오, 사에구사 도시카쓰, 시라카와 유타카, 항일문학, 친일문학, 남북한문학사

I. 서론

이 글은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기술 내용 중 항일문학, 친일문학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남북한문학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항일과 친일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의의 문제의식은 중국과 일본 한국문학사에 나타난 항일과 친일에 대한 인식차를 조망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서술체계나 다루고 있는 작가 및 작품이 한국과 일본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 제외하게 되었다.¹⁾ 중국의 경우, 한국문학사의 시기구분이나 서술 체계에 있어 남북한문학사의 경향을 고루 반영하고 있음에도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거나 배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그들이 참고로 하는 남북한문학사 자체가 친일문학에 대한 기술이 미비한 점(북한은 친일문학이 항일혁명문학으로 대체되고, 남한의 경우도 개별적인 친일작가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지만 그것을 ‘문학사’라는 공적인 기술에 편입시킨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 다른 하나는 항일혁명의 전통을 중시하는 북한문학사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중시하는 중국의 자국문학사가 결합되기 매우 용이한 구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북한문학사의 기술을 따르는 김병민의 『조선문학사-근현대부분』

1) 본고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인문 공동연구(테마: 해외 한국문학사의 문화향단적 연구-중국과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를 중심으로)의 2차년도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애초의 목표는 한국문학사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서술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음을 밝혀둔다.

(연변대학출판사, 1994)과 남한문학사의 기술을 따르는 김영금의 『한국문학(韓國的文學)』(북경대학출판사, 2009)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경우, 일본과의 관련성이나 친일문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은 없으며(친일행적 보다는 ‘부르주아 반동 작가’라는 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이광수의 경우도 누락되거나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기본적인 서술경향이다. 후자의 경우 역시 친일문학 대신 항일혁명문학 혹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성과를 강조하는 기술로만 채워져 있다. 이를테면 한국문학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양건식을 언급한다거나, 그 평가 기준을 친일혐의로부터 자유롭다는 데에서 찾으려는 것 등이 그러하다.²⁾ 이렇듯 친일문학이라는 프레임을 애초부터 설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항일혁명문학에 방점을 두고, 더 나아가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친일문학을 언급하는 방식은 한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와도 대비되는 중국 측 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는 중국에 비해 양적으로 많지 않으며, 더구나 고전문학에서 근현대문학까지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문학사는 약 8종인데, 주로 고전문학사 기술에 치우쳐 있고 근현대문학에 관한 기술은 미미하다.³⁾ 일본인의 시각에서 집필된 본격적인 한국근현대문학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壽勝)의 『한국문학을 맛보다(韓國文學を味わう)』(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와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朝鮮近代文學の歩み)」(『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 九州産業大学出版会, 1997) 정도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시적 시조의 문학사 저술은 없지만, 한국근현대문학 일본인 연구

-
- 2) 이선이의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의 문화향단적 실천」(『비교문화연구』 4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17쪽)과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의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창작과비평사, 1991)에서도, 북한문학사가 이광수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계몽문학은 도외시키고 양건식 등의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만 강조한 반면, 남한문학사 대부분이 양건식을 배제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위의 책, 307~308쪽).
- 3)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의 고전문학사와 근현대문학사 인식과 서술양상에 관해서는 각각 류정선의 「일본 ‘한국문학사’에서의 한국고전문학사 인식과 서술양상」과 윤송아의 「한국문학사를 가로지르는 언어·문화·역사의 계기들-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의 한국근현대문학 인식과 서술양상을 중심으로」를 참고 바람(『비교문화연구』 48, 앞의 책).

자의 최전선에 자리하는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의 연구 성과도 빼 놓을 수 없다. 앞서 중국의 경우, 친일문학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정면으로 직시해 오지 않은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친일문학이라는 프레임이 매우 선명하게 자리한다.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관점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며, 기본적으로 남한문학사의 서술체계에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평가 부분에 이르러서는 남한문학사와 분기점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⁴⁾

본 논의에서는, 일본 내 한국근현대문학의 연구 현황, 특히 일제 말기 식민지 문학(친일문학)에 집중되는 현상과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에서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이 선별 혹은 배제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해석, 평가하는 방식과 우리 문학과 충돌되거나 비껴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II. ‘친일-문학(사)’의 일본(적) 역사화 과정

일본인 연구자들이 한국문학, 그 중에서도 근현대문학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 현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 있는 장사선에 따르면, 저널리즘적 논의를 탈피하고 일본인에

4)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에 주목한 선행연구로는, 장사선의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역사적 반성 및 협동 연구 전망」(『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설성경 외, 『세계 속의 한국문학』(새미, 2002), 김수용 외, 『한국문학의 해의 수용과 연구 현황』(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정현숙의 「북한, 중국, 일본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1)」(『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윤송아의 「한국문학사를 가로지르는 언어·문화·역사의 계기들」(『비교문화연구』 4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았으며, 일제 말기 친일문인의 내적 갈등, 내적 논리에 대한 일본 특유의 시선을 추출하는 데에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 1966), 김재용의 『협력과 저항』(소명, 2004), 『풍화와 기억』(소명, 2016), 김학동의 『장혁주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국학자료원, 2008), 『장혁주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역락, 2011), 심원섭의 『일본 유학생 문인들의 대정·소화 체험』(소명, 2012), 곽형덕의 「경계의 모호함과 평가의 단호함을 묻다-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사이間SAL』 9, 2010) 등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의해 처음으로 아카데미즘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무렵이며, 와세다(早稲田)대학의 오무라 마스오와 덴리(天理)대학의 오타니 모리시게(大谷 森繁),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도쿄외국어(東京外國語)대학의 사에구사 도시카쓰가 일본 내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의 선편을 쥐고 주도해 간 1세대 연구자라고 한다. 여기에 가지이 노보루(梶井 暁), 다나카 아키라(田中 明), 오쿠라 히사시(小倉 尚), 조 쇼키치(長璋 吉) 등이 뜻을 함께 하여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를 결성하고, 동인지 『조선문학-소개와 연구』(1970~1974)를 간행하면서 순수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의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근현대문학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 시기(정확히는 1939년 무렵부터)에는 문학 연구라기보다 내선일체 정책을 지탱하기 위한 시국적 성격이 강하였고, 해방 이후 50년대까지는 김달수, 이은직, 박춘일 등의 재일조선인에 의한 연구(대개 북한문학에 치우친)가 대부분이었다.⁶⁾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잡지 『문학(文學)』에 ‘조선문학’ 특집호가 꾸려지고, 재일조선인 잡지 『한양』과 『계간 삼천리』의 발행부수가 급증하는 등 한국(남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또한, 한국에서 금기시되던 김지하 연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그를 우상화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고 한다. 김지하 연구를 비롯한 한국현대문학 관련 단행본과 문학사가 다수 간행되고, 도쿄외국어대학과 도야마(富山)대학에 조선어, 조선문학 관련 학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 무렵이다.⁷⁾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기저에는 1965년 한일조약과 1972년 남북공동성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총련 조직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가세하여 북한문학 일변도에서 남한문학으로 자리바꿈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조선문학의 회’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문학의 회’ 결성을 전후한 사정은 오무라 마스오의 최근 인

5)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역사적 반성 및 협동 연구 전망」, 『한국 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518~519쪽,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오무라 마스오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87쪽.

6) 설성경 외, 앞의 책, 326쪽.

7) 장사선, 앞의 논문, 531쪽.

터뷰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1965년까지 일본에서 조선문학 연구라 하면 북한문학뿐이었죠. 그때까지 한국문학은 시야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선문학회를 조직해서 1970년에 『조선문학-소개와 연구』를 처음으로 발행했을 무렵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낸 잡지를 보더라도 한국문학이 중심이었고 북한문학 쪽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6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은 일본 내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1965년 한일조약에 즈음해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나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씨 등이 정말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타다 다카시 선생이 약간 뒤로 밀려 났습니다. 하타다 씨가 “조선학은 차별부락이다.”라는 말을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인즉 조선학은 학문으로서 정착되기는커녕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는다. 전체 학문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평론(朝鮮評論)』에서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고요. 일본조선연구소 측에서 세계 운동 차원에서 북한의 자료를 번역해 제공하라는 요청이 왔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연구소 내에 문학부가 있었으나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문학이라 해도 제일조선인문학을 읽는 모임이 됩니다.⁸⁾ (미졸 및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조선문학의 회’는 ‘독립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학』1970년 11월호 ‘조선문학’ 특집을 봐도 알 수 있듯 저(오무라 마스오-인용자 주)와 다나가, 가지이 등 몇몇을 제외한 모든 필자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일본조선연구소처럼 정치 단체의 활동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연구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선문학의 회’는 한국인들이 아닌 일본인들의 모임이자, 정치와는 거리를 둔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학준 씨의 가입은 거절했습니다.⁹⁾

위의 두 인용문에서 보듯, ‘조선문학의 회’는 설립 초기부터 순수 일본인의 모임이자, 정치와 거리를 둔 순수 학술 모임이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의

8) 오무라 마스오, 곽형덕 옮김, 『한국문학과 그 주변』, 소명, 2017, 489-490쪽.

9) 장문석, 앞의 논문, 188쪽.

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문학에 치우쳐 있던 재일조선인 연구자들과 거리를 두고 동시기 일본에 체재하던 김윤식 등 한국 연구자와의 교류를 심화해 간 것도 변화된 특징 중 하나라고 하겠다.¹⁰⁾

실제로 오무라 마스오는 1970년대 중반에 임종국의 『친일문학론』(高麗書林, 1976)과 김윤식의 『한일문학의 관련양상』(朝日新聞社, 1975), 『상흔과 극복-한국의 문학자와 일본』(朝日新聞社, 1975)을 번역하였으며, 80년대에는 사에구사 도시카쓰, 조 쇼키치와 함께 『조선단편소설선』(岩波文庫, 1984), 『한국단편소설선』(岩波書店, 1988)을 간행하는 등 소설 번역에도 힘을 기울였다. 전자는 해방 이전 식민지 시기 작품이고, 후자는 동시대 작품을 모은 것인데, 오무라 마스오의 회고에 의하면 두 권 모두 판매량이 저조하였으나 그나마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시기 문학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층만이 아니라 연구 영역으로 옮겨오면 더욱 두드러진다. 김용제, 김종한, 윤동주 등 식민지 문학에서부터 재만조선인문학, 재일조선인문학, 북한문학, 해방 이전 리얼리즘 문학에 이르기까지 관심 영역이 폭넓게 걸쳐져 있던 오무라 마스오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그 외 사에구사 도시카쓰, 시라카와 유타카, 세리카와 데쓰요(芹川哲世), 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 하타노 세쓰코(波田野節子) 등 1세대, 2세대 일본인 연구자의 관심은 대개 식민지 시기 문학에 치중되어 있다.¹¹⁾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의 연구가 일본과 한국 학계에 본격적으로 발신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붐을 타고 확산된 제국주의, 식민지, 젠더 등 마이너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자리한다. 이광수, 윤동주, 장혁주, 채만식, 김종한 등 개별 작가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서를 비롯해 소설 번역 작업에 활기를 띠게 되는 것도 그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 연구 성과만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1970년 당시 김윤식과 오무라 마스오를 비롯한 일본 내 한국문학 연구자들과의 친분 및 학문적 교류 상황은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푸른사상, 2014, 275~302쪽)에 기술되어 있다.

11) 이에 관해서는 장사선의 앞의 논문에서 자세하다(520~523쪽).

오무라 마스오

- 『朝鮮文學關係 日本語文獻目錄 1882.4~1945.8』(공편, 綠蔭書房, 1997)
- 『対訳 詩で学ぶ朝鮮の心』(편역, 靑丘文化社, 1998)
-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공편, 민음사, 1999)
- 『윤동주와 한국문학』(소명, 2001)
- 『조선 근대문학과 일본』(綠蔭書房, 2003)
-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전6권, 綠蔭書房, 2004)
- 『金種漢全集』(공편, 綠蔭書房, 2005)
- 『人間問題』(平凡社, 2006)
- 『식민주의와 문학』(소명, 2014)
-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전6권, 소명, 2017)

사에구사 도시카쓰

- 『韓国文學を味わう』(國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報告書, 1997)
-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베틀북, 2000)
-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공편, 소명, 2003)
- 『이광수 작품선』(이름, 2003)
- 『濁流』(講談社, 1999)
- 『現代韓国短篇選』上·下(공역, 岩波書店, 2002)

시라카와 유타카

-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大学教育出版, 1995)
- 『朝鮮近代文學の歩み』(『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 九州産業大学出版会, 1997)
- 『日本植民地文學精選集』(朝鮮編 監修, ゆまに書房, 2001)
- 『張赫宙日本語作家選』(공편, 勉誠出版, 2003)
- 『万歳前』(勉誠出版, 2003)
- 『朝鮮近代の知日派作家, 苦闘の軌跡』(勉誠出版, 2008) ; 『한국근대 知日작가와 그 문학연구』(곽형덕 역, 깊은 샘, 2010)
-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미망인』(글누림, 2018)

이 외에도 조선 편, 타이완 편, 만주 편, 남양군도 편으로 이루어진 총 27권 분량의 『일본식민지문학정선집(日本植民地文学精選集)』(ゆまに書房, 2001), 『조선근대문학선집(朝鮮近代文学選集)』(平凡社, 2005~), 『한국근현대문학사전(韓國近現代文学事典)』(權寧珉·田尻浩幸 공편, 明石書店, 2010) 등과 같이 사전, 전집류의 간행도 눈에 띈다. 또한, 구보타 준(久保田淳) 외, 『이와나미 강좌 일본문학사(岩波講座日本文学史)』(岩波書店, 1997) 시리즈,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공편의 『좌담회 쇼와문학사(座談會昭和文学史)』(集英社, 2003) 시리즈 등의 일본 자국문학사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전 문학사에 보이지 않던 재일조선인문학이나 오키나와문학이 새롭게 편입되는 변화가 포착된다.¹²⁾

이처럼 식민지 문학 시리즈가 간행되고 일본(본토) 문학사 기술에 주변부 문학이 포함되는 현상은 역사수정주의와 반(反)지성주의, 그리고 일상을 파고드는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에 대한 동시대의 성찰적 사유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해야 할 것은, 오무라 마스오, 사에구사 도시카쓰, 시라카와 유타카의 연구가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붐을 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연구자의 관심은 일관되게 식민지 시기 문학이었고, 오히려 뒤이은 포스트콜로니얼 연구가 이들의 연구 성과에 얼마간 빛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 연구자는 여타 한국문학 가운데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법한 친일문학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을까? 그것도 한국에서조차 관련 연구가 척박하던 이른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학계에서도 친일문학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 1966)이 간행되기까지 오랫동안 금기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고, 그 후로도 김재용, 류보선, 강상희, 하정일 등에 의한 새로운 방법론이 제출되기까지

12) 1980년대 후반에 간행된 『강좌 쇼와문학사(講座昭和文学史)』(有精堂, 1988)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차 구성은 기본적으로 쇼와 초기 문학, 쇼와 10년 전후, 전중부터 전후로, 쇼와 3, 40년대, 일본문학의 현상 등 단순한 시기 구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7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와나미 강좌 일본문학사(岩波講座日本文学史)』 시리즈에는 <재일조선인의 문학>(제14권), <아인우 문학>(제17권)이, 총 6권으로 구성된 『좌담회 쇼와문학사(座談會昭和文学史)』에는 <원폭문학과 오키나와문학·침묵>을 말하는 언어>, <재일조선인문학·일본어문학과 일본문학>(제5권)이 수록되어 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했다.¹³⁾ 분명한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연구자 역시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 촉발된 측면이 강하고, 이에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무라 마스오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이 간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번역·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친일문학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친일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0년대에 한국에서 일제 말기 식민지 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경우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나,¹⁴⁾ 이후의 연구에서는 그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한다. 즉,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연구자들로 하여금 친일문학으로 입문하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내용을 비껴가는 형태로 한국 연구자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친일문학 연구 지형에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의 친일문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포지션 문제다. 본 논의의 문제의식과도 겹쳐지는 부분으로, 이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는 선행연구가 있다. 『세계 속의 한국문학』 제 4장 3절에 수록된 글이 그것인데, 일본인 연구자가 친일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일본 연구자가 갖고 있는 자국에 대한 역사관

13) 이 복잡하게 얽힌 친일문학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는 데에 김명인의 다음과 같은 논의가 참고가 된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 소박한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친일문학론을 최초로 제기했다면 김재용은 임종국의 억압/저항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갱신하면서 친일문학을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심 주제로 가져다 놓았고, 강상희가 이를 또 다른 동일화와 배제의 전략이라 비판하고 해체적 탈근대·탈식민적 관점을 제기했다면 윤대석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문제에서 탈식민적 실천의 문제로 이를 발전시켰으며, 박수연은 탈근대·탈식민주의의 심리적 근거를 문제 삼아 친일문학을 보는 제3세계 민족주의적 관점의 복권을 시도했다면 하정일은 맑스주의적 탈식민론의 관점에서 제논의들을 정리하여 논란의 한 단락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철과 류보선은 친일문학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발생론적 맥락을 한국 근대문학의 성격과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 데 더 주력하여 한국 근대문학과 그 작가들이 지닌 식민지 근대라는 조건 속에서 모더니티 지향의 특수성이 친일문학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김명인, 「친일문학 재론-두 개의 강박을 넘어서」,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회, 2008, 287쪽).

14) 사에구사 도시카쓰, 『狀況과 文學者の 姿勢-日帝末期 韓國文學의 경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오무라 마스오와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친일문학 연구의 특징과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대비시켜 제시한다.

오오무라 교수의 이러한 문제의식의 이면에는 역시 전후 민주주의의 고扬기에 청년기를 보낸 연구자의 **역사적·윤리적 책무감**, 그리고 자국의 역사에 대한 윤리적 집착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오오무라 교수가 자신들 세대들의 한국 문학 연구 속에 ‘구도적 자세’가 있었다고 고백한 이유일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오무라 교수의 한국 문학관은 ‘일본적’이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문인들은 최종적으로 일본이라는 외부적 요인-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양쪽을 포함한-의 희생자가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친일 문인들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약간의 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며 이런 의미에서 오오무라 교수의 논의는 한국 문학이 안고 있는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¹⁵⁾(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또 다른 연구자(사에구사 도시카쓰-인용자)는 친일 문인들의 의식 구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상처 파헤치기’** 스타일의 연구 방법을 보여준다. (중략) 사에구사는 바로 ‘수치’라는 언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한국인의 친일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그것의 극복 방법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사에구사의 이 발언은 ‘수치’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음, 그것이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뿌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 발언 밑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문학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문학사를 마주하고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나 모종의 콤플렉스**가 강력한 투사의 형태로 지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¹⁶⁾

한국문학사에서 ‘암흑기’로 치부되는 친일문학의 발생 원인을 전적으로 외부적 요소(일본 제국주의의 외압)로 보고 그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하려는

15) 설성경 외, 앞의 책, 344쪽.

16) 위의 책, 346쪽, 350쪽.

오무라 식 방식이나, 친일문학 역시도 동시대 한국 문인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 상처를 파헤치려는 사에구사 식 방식이나,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가 한국 문학사의 상처를 직시하는 작업이 되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인이 회피하고 싶은 일본 근대사의 상처를 파헤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한국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지식인들 역시도 청산하지 못한 일본 근대사의 원죄적 상처”¹⁷⁾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상기 인용문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이들 연구자의 상반된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일본인의 입장에서 항일문학 혹은 친일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지배 당사자인 일본인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으며, 일본인의 입장에서 친일문학을 옹호할 수도 비난할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명제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¹⁸⁾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권의 문학사 텍스트 역시 이러한 중층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친일문학을 대하는 대비되는 방식, 즉 친일이라는 상처(원죄는 일본)를 덮어주고 그 대립항에 위치하는 항일(저항)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오무라 식 방식과 친일을 한국문학사의 상흔 내지는 굴복, 콤플렉스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일본=지배/한국=식민지’라는 역사적 문맥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외국문학’으로서 접근해 가려는 사에구사 식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앞의 두 방식과 달리, 동시대 일본 문단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일본어 문학’이라는 자장 속에 친일문학을 한꺼번에 녹여내고 있는 시라카와 식 방식을 함께 시야에 넣어 보도록 하겠다. 이때 친일문학을 선별 혹은 배제하는 방식, 그리고 그 가운데 노골적인 친일과 선의의 친일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방식, (한국에서는 비판적 잣대가 되는) 일본어 창작에 대한 무비

17) 위의 책, 359쪽.

18) 오무라 마스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러한 심경을 잘 대변해 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일문학을 했다 하더라도, 조국을 등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국에서 규탄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본인이 그 비난의 합장 속에 끼어 들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친일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며, 옹호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옮김,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 2017, 10쪽)

판적 혹은 호의적인 평가, 항일문학에서 저항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소거하는 방식 등은, 세 연구자의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시각	친일	친일 (재)평가	항일(저항)
오무라 마스오	역사적 윤리적 책임감	이광수	김종한	윤동주
		김용제		
사에구사 도시카쓰	국외자 시선	이광수	김종한 이석훈 최재서 최병일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김용제 주요한		

연구자	시각	친일	친일 (재)평가	항일(저항)
시라카와 유타카	선이의 해석자	이광수	- 별도의 논의 없음	윤동주 - 저항적 측면소재, 보편적 의미의 '조국'을 그리는 마음으로 읽어냄
		장혁주 이석훈	- '지일'이라는 프레임 사용, 특히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높이 평가 -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간행 - 노골적인 친일작품은 『이와모토 지원병』과 『새 출발』 정도라고 기술 - 친일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복원·부각	

〈표〉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의 인식 비교

Ⅲ. ‘외국문학’으로서의 친일문학 : 사에구사 도시카쓰, 『한국문학을 맞보다』

우선, 본격적인 한국근현대문학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맞보다』(이하, 『한국문학』으로 약칭)를 살펴보자. 이 책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항일문학에 대한 기술은 따로 보이지 않고, 윤동주와 한용운에 대한 짙막한 기술만 보인다. 그에 비해 친일문학 기술에는 비교적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제7장 <암흑시대의 문학>과 제8장 <친일문학 그 후>, 그리고 제4장 <근대사를 살아간 이광수>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친일문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작가는 이광수를 비롯하여 김용제, 주요한, 김종한, 이석훈, 최재서, 최병일 등이다. 이들에 대한 기술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용제의 기술에서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 출발했으나, 훗날 군국주의 혹은 전쟁에 협력한 시집을 간행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승리의 태평양』은 아주 공허한 작품의 시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김용제와 같이 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 친일문학으로 ‘전향’한 경우, 그 근원을 따지자면 “일본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일본인이 앞장서서 “일본인이 얼마나 식민지 사람들의 인간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거나, “가해자 측 일본인이 희생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반성

을 소리 높여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독해 방식이며, 더 나아가 “문학이라기보다 범죄심리학”에 가깝다고 비판한다.¹⁹⁾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친일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에구사와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보였던 오무라 마스오는 김용제의 ‘전향’을 놓고도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단 김용제의 경우는 사정이 좀 특이하다. 아라 마사토, 오다기리 히데오, 사사키 기이치 등이 ‘성전 문인’을 윤리적으로 비판한 바처럼, 우리 일본인이 김용제를 질책할 수는 없다. 후퇴 중이던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맨 앞에 그를 세워 격렬하게 싸우게 하고 패배를 맛보게 했으며, 그 패배 후에 다시 격렬하게 친일문학으로 달려가게 한 것도 일본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에서 김용제는 시종 문단 표면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나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친일문학으로 나아갔던 김용제는 그 나름으로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죄의식, 수치 의식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는 남은 반생을 빛이 들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석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나름으로 책임을 진 것이다.²⁰⁾

오무라는 저항 시인 운동주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문인에서 친일로 전향한 김종한, 김용제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위의 인용문의 출처이기도 한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에서 오무라는 김용제를 가리켜 “일본의 지배 계급과 식민지 지배에서 가장 용맹하게 저항한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시인”이자 “일본과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사에 빛나는 업적”²¹⁾을 남긴 시인이라는 높은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 그가 한국문학사에서 온전히 평가되지 못하고, 일본

19) 三枝寿勝, 『韓国文学を味わう』,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 98쪽(본서는 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가 ‘아시아 이해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 10월부터 실시한 ‘아시아이해강좌’ 가운데 1997년 1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행된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 강좌를 보고서(『アジア理解講座1996年度第3期「韓国文学を味わう」報告書』) 형태로 묶은 것이다. 본 강좌는 웹사이트[<http://www.han-lab.gr.jp/~cham/ajiwau/contents.html>]에도 공개되어 있다. 이 글의 인용은 보고서 출판본에 의하며, 쪽수는 본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20) 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옮김, 앞의 책, 159쪽.

21) 위의 책, 9쪽.

문학사에서조차 망각되어 온 것은 “국제적인 벗이 행했던 역할에 둔감”했고, “이웃나라의 진보적인 문인에게 친일문학을 강요하여 기진맥진 끝에 변절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아픔을 안고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²²⁾에서 찾고 있다.

오무라는 김중환에 대해서도 『김중환 전집』(공편, 綠蔭書房, 2005)을 간행할 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사에구사 역시 김중환에 대해 남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중환은 일본어로 된 시집은 두 권만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원정(園丁)」(『국민문학』 1942.1)이라는 시는 명백하게 내선일체, 즉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음을 노래한 시이지만, 다른 문인들처럼 총독부의 요구에 앞장서서 응하거나 노골적으로 천황을 노래하지는 않았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이것은 내선일체를 노래한 시이지만 매우 온화한 느낌으로, 소리 높여 반대를 외치는 것도, 또 자신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도 아닌, 작가의 체념이 느껴지는 시”이며 “친일문학이라고 해도 작가 자신의 성실함이 묻어나는”(72쪽) 시라는 다소 생소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김소운과 함께 “조선인이면서 일본어로 시를 번역한 업적이 있는 사람”(98쪽)이라는 표현에서, 번역가로서의 능력, 일본어 실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뒤이어 살펴볼 시라카와 유타카의 문학사 기술에서도 두드러진다.

다음은 이석훈에 대한 기술인데, “친일소설로는 이광수가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마키 히로시(牧羊)라는 이석훈”(98쪽)이 있다고 소개한 후, 앞서 김중환과 마찬가지로 “성실함이 전해지는 친일문학”(98쪽)이라고 기술한다. 기존 한 국문학사에서는 볼 수 없는 김중환과 이석훈에 대한 그의 평가를 좀더 따라가 보자.

결과적으로 김중환과 이석훈은 일본인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거슬린다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저항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친일문학**이 아닌가 한다. 그들 이상으로 노골적인 글쓰기를 하면, 거꾸로 무언가 묘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중략) 친일문학 안에서 일본인에게 받아

22) 위의 책, 10쪽.

들이기 쉬운 사람의 작품을 읽고 “이 사람들은 불쌍한 희생자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기 때문이다.(98쪽)

사에구사의 일관된 주장은 한국문학을 어디까지나 ‘외국문학’으로서 연구하라는 것이다. 친일문학을 통해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희생자에게 어떤 상처를 나겼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나, 거꾸로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 예컨대 일본에서의 운동주나 이육사의 인기 역시 일본인의 과도한 자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국문학(친일문학)을 ‘희생자’ 프레임에 가두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즉, 일본인의 입장에서 친일문학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상흔=희생자·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살인범이 자기가 죽인 자나 상처 입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한이나 이석훈의 작품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거슬린다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저항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친일문학”이라는 것인데, 우선은 김용제나 주요한과 같이 “노골적인” 친일문학과 대비되는 지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듯하다. 노골적이지 않은 그리하여 일본인의 입장에서 ‘희생자·피해자’라는 구도에 구애됨 없이 읽을 수 있는 친일작품, 혹은 “성실함이 전해지는 친일문학”이라는 사에구사 식 표현은, 그의 친일문학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국문학사에서는 도외시되었던 이석훈, 김종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오후라, 사에구사에 이어 시라카와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에구사의 경우, 친일혐의가 명백한 최재서에 대해서도 친일문인이라는 점을 유보한다. 이를테면 최재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최재서는 한국에서는 “일본에 가장 많이 협력한 악질적인 작가”(99쪽)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대표작 『민족의 결혼』은 일본인의 피를 이어받은 가락(駕洛)족 여성과 신라인(왕실) 남성의 결혼으로 내선일체를 표방한 작품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해는 잘못된 것으로, 신라가 대국이고 가락족은 신라의 차별 받는 쪽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와 반대로 “교묘하게 내선일체의 냄새를 풍기면서(카모플라주)”(99쪽) 일본에 대한 차별을 폭로한 것으로 읽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일본에 가장 많이 협력했다는 이유로 원망 받는 민족반역자라고 해도, 이런 글까지 썼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99쪽)이라

는 말도 덧붙인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일제 말기의 대표적 친일잡지 『국민문학』을 이끌어 간 최재서와 『민족의 결혼』에 대한 한국 학계의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한국 학계의 평가를 뒤집으려는 성급함이 오히려 최재서에 대한 과도한 변호(이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반대로 1942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볼 때 “민족적인 정신을 주장하는 작품일 리 없는”데, 한국에서는 모두 “민족적 정신을 강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읽는 것”(62쪽)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그가 일본에 협력하는 행동을 했다고 일컬어지던 시기”이며, “이광수가 아무리 민족적인 것을 쓰려고 해도 허락될 리 없으므로, 『원효대사』는 거꾸로 면밀하게 읽으면 어딘가에 필시 일본 지배자에게 허락된 글쓰기가 있을 것”(62쪽)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일본 지배자에게 허락된 글쓰기”란 『원효대사』가 ‘친일문학’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추측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수의 행보와 그의 문학적 실천이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국 학계는 그간 수많은 논의를 축적해 왔다.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읽어 온 『원효대사』의 독해에 균열을 내는 것은 물론, 이를 친일문학이라는 자장에 옮겨 놓으려는 시도가 앞서의 최재서의 『민족의 결혼』을 친일문학의 자장에서 비껴 놓으려는 시도와 어떻게 충돌하고 겹쳐지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에구사가 『원효대사』를 호출한 이유가 그것이 민족주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광수에 대한 평가도 언젠가는 바뀔 것”(62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민족주의든 친일이든 이광수에 대한 한국 학계의 평가가 한곳으로 지나치게 기울는 것을 경계하라는 제언으로 보인다. 타당한 제언으로 보이나, 문제는 “민족을 위한 친일행동”(62쪽)이었다는 그의 논리가 이광수의 자기정당화의 논리에 기대고 있을 뿐,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쩌면 사에구사의 한계라기보다, 애초부터 그의 관심이 이광수의 친일문제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가 친일에 대한 그만의 문제의식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에 대한 평가 또한 색다르다. 친일성향을 보이는 최병일의 여러 작품 가운데 사에구사가 선정한 것은 소설집 『배나무(梨の木)』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일본어로 쓰였으며, “총독부가 허가한 친일문학”(100쪽)이라고 소개하며, “판소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머와 민족의식, 혹은 『임궏정』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정신”(99쪽)이 엿보이며, 전쟁 말기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밝은 인상”의 작품이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발음이 서툰 조선인의 모습을 그린 장면, 그것도 ‘황국신민 서사’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조선인을 희화하여 그린 장면을 유머와 해학으로 볼 것인지, 일본 제국이 강제한 ‘국어’로서의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조선인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는 좀더 세심한 작품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듯하다.

정리하자면,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서술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이나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의 한국학계의 평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방식의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한국문학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친일문학’ ‘암흑시대의 문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가운데에서도 완벽하게 배제되어 온 김종한, 이석훈 등을 한국문학사 안에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그것인데, 그 과정이 다소 성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한계를 보인다. “한국문학을 외국문학으로서 연구하라”²³⁾는 사에구사의 연구자적 포지션은 달리 말하면, ‘일본’이 깊게 개입된 ‘친일’ 혹은 ‘친일문학’이라는 사상적 결투의 장(場)에 한국만 남겨두고 홀로 도주하는 격이며,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 비약과 한계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하겠다.

IV. ‘지일’과 ‘친일’ 사이 : 시라카와 유타카,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

그렇다면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이하, 「발자취」로

23) 사에구사 도시카쓰, 심원섭 옮김, 앞의 책, 11쪽.

약칭)는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친일문학 관련해서는 14장 <일본어 문학의 등장>과 15장 <‘일제’ 말기(1941~45)의 제상(諸相)> 두 개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장혁주와 김사랑, 이석훈, 김용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의 사에구사의 기술방식과 가장 변별되는 것은 ‘친일문학’ 혹은 ‘암흑기 문학’이라는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주요 문학사적 사건이나 작가, 작품, 잡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때 ‘일본어 문학의 등장’이라는 측면, 즉 일본어로의 창작 여부가 동시대 한국문학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1938년 조선교육령 개정 이전과 이후로, ‘조선어’가 ‘수의(隨意)과목’으로 격하되고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던 시기와 그 이전에 발표된 작품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어서 “일본문단에 진출하고 싶다면, 일본어로 일본 독자에게 조선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면 하는 다양한 개인적인 동기”²⁴⁾에서 일본어 작품을 생산한 작가로 김사랑과 장혁주를 언급한다. 김사랑의 경우, 아쿠타가와(芥川) 상 후보작으로 오를 만큼 평가 받았던 『빛속으로(光の中に)』를 (조선어 사용이 가능했던 시기에) 일본어로 쓴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현실을 일본에 호소하기 위한 그의 집념”(354쪽)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태평양 전쟁 발발과 함께 조선으로 “강제 귀향당한” 후에는 조선어로 창작활동을 이어간 “기개 있는 작가”(356쪽)라고 소개하고 있다.

장혁주의 경우도 『아귀도(餓鬼道)』(1932)라는 작품이 종합잡지 『개조(改造)』의 현상소설로 당선되면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먹고 살기 위해 조선 풍속물을 쓰”거나, “친일적 작품”(354쪽)에도 손을 댄 것이라고 말한다. 『발자취』에서는 짧게 언급하였지만, 장혁주가 친일문학으로 향해간 궤적에 관한 시라카와의 인식은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동국대출판부, 2010)에 자세하다. ‘일본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라는 이 책의 부제는, 장혁주에게 있어 ‘일본어’란 문학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의 의미 그 이상의 함의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24) 白川豊, 「朝鮮近代文学の歩み」, 『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 九州産業大学出版会, 1997, 354쪽(이하 이 책의 인용 쪽수는 본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장혁주의 일본어 글쓰기를 둘러싼 복잡한 사정에 대해 제일 평론가 임전혜는 ‘민족적 변절’이며, 일본제국주의에 굴복한 작가라고 잘라 말하지만, 시라카와의 경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며 판단을 유보한다.²⁵⁾ 그의 또 다른 저서 『한국근대 知日작가와 그 문학 연구』(깊은샘, 2010)에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문학에서조차 철저히 외면당해 온 장혁주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그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두 작가는 창작 활동의 질과 양을 보더라도 문호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염상섭의 경우 문학사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장혁주는 그 자세 및 일본어 작품이 많은 것 등 때문에, 한국 근대 문학사 속에서 거의 말살 당한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⁶⁾

친일문학이라는 잣대만 놓고 볼 때, 장혁주와 염상섭은 매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시라카와는 이 둘의 접점을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지일파’ 식민지 문인”²⁷⁾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한국문학사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친일파’가 아닌, ‘지일파’ ‘식민지 문인’이라는 자장, 더 구체적으로는 동시대 일본문단 상황으로 자리를 옮겨 비춰 보게 되면 이 둘의 접점과 차이점은 선명해진다. 시라카와는 이 둘 두 작가 모두 일본(문단)을 향한 열망이 강하였고, 각각 일본이라는 “더 큰 시장”을 향해 창작 활동을 전개한 점은 동일하지만, 둘의 평가가 엇갈리게 된 것은, 염상섭은 초연한 문명 비판적인 태도(염세주의적 리얼리즘)로 일관한 반면, 장혁주는 세상과 밀착하여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

25) 광형덕에 따르면, 장혁주의 조선어 작품을 둘러싸고, 임종국은 “조선에서 발표된 그의 글들은 일본작가의 기고문”이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임전혜는 장혁주의 ‘민족적 변절’을 통렬히 비판하며, 그를 일본제국주의에 굴복한 작가라고 규정하였고, 시라카와는 장혁주가 일본작가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국 문단의 작가로는 인정받지 못한 작가라는 결론을 내린다(광형덕, 앞의 논문, 398쪽).

26) 시라카와 유타카, 광형덕 옮김, 『한국근대 知日작가와 그 문학연구』, 깊은샘, 2010, 61~62쪽.

27) 위의 책, 53쪽.

식(실용적 리얼리즘)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서나 염상섭은 상당히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했으며, 일본어 작품을 한 편도 남기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서 찾고 있다. 거꾸로 장혁주의 경우는 출생에 관한 원체험적인 콤플렉스(양반이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와 이로 인한 자존심 과잉,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발하는 성향이 창작 활동에도 그대로 드러나며, “‘친일’적 언동”을 많이 한 것도 그와 같은 성격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⁸⁾ 친일 혐의로 덧칠된 기존의 장혁주 문학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기 위한 논거로 그의 성격적 결함을 꼽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쟁 협력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을 일본어로 창작하여 명실공이 친일문학 선두에 자리해 온 장혁주 문학을 “탁월한 일본어 실력”이라든가 “일본어 능력”²⁹⁾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평가와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1930년대 후반 염상섭이 붓을 꺾고 만주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한국 내 빈약한 독자층이나 작가로서 위기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결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해석을 반박하는 한편, 같은 시기 장혁주가 일본에 완전히 정주하여 일본어 작품 생산에 몰두한 것은 “일본어 능력을 절차탁마해서 일본인 작가”와 맞붙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을 써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³⁰⁾에서라는 선의의 해석으로 일관한다. 이는 장혁주에 대한 시라카와의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장혁주의 일본어 소설을 다수 언급하면서, 일본의 국책에 따르는 시국적인 작품은 『이와모토 지원병』과 『새 출발』 두 작품뿐이며, 그것도 “노골적으로 일본의 국책에 아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³¹⁾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 공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언동만을 보고,

28) 위의 책, 61쪽

29) 위의 책, 47쪽.

30) 위의 책, 47쪽.

31) 위의 책, 50쪽. 장혁주의 일본어 작품 중 친일성향의 작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 이를테면, 일본어 작품 70여 편 중 “시국 국책관련 작품”은 10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학동도 지적한 바 있다(김학동, 앞의 책, 61쪽).

장혁주의 ‘친일’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불공평한 인물 평가³²⁾라든가, “1940년을 전후해서 장혁주는 술선해서 ‘친일’ 노선을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일본 국내(내지)에 머물면서 작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³³⁾라는 식의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선의로 해석한 기술이 다수 보인다. 이것은 장혁주 문학을 오로지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방식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며, ‘친일’을 ‘지일’로 바꿔 해석하면서까지 장혁주라는 한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몰입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친일문학 가운데 유독 장혁주 문학이 “거의 말살당한채로” 한국문학사 정전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시라카와의 지적은 유효해 보인다. 한일 문학사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장혁주의 문학사적 위치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에 관해서는 곽형덕의 다음과 같은 논의가 참고가 된다.

그렇다면 장혁주를 한국문학이라는 카테고리 밖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비단 장혁주가 1936년 일본어 창작을 위해 발표기관이 집중된 도쿄로 거점을 옮기고, 1939년 이후 노골적으로 전쟁 협력적인 문필 활동을 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만으로는, 일제 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책 활동을 누구보다도 활발히 벌였던 이광수나 유진오 등의 한국어(조선어) 작품이 한국문학사에서 정전으로 자리 잡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장혁주가 남긴 많은 한국어 작품까지 배제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것보다는 해방 후 장혁주가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에 귀화(naturalization)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앞서 설명한 문학사적 배제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노골적인 친일 행적으로 치자면 장혁주나 이광수나 유진오나 별반 다르지 않지만, 유독 장혁주에 대한 배제와 거부 반응이 심한 이유를 곽형덕은

32) 위의 책, 43쪽.

33) 위의 책, 42쪽.

34) 곽형덕, 앞의 논문, 398~399쪽.

그가 해방 후 일본으로 귀화한 데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일본으로 ‘귀화’한 장혁주와 해방 이후 북으로 건너간 이광수나 유진오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예로 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계급문학, 동반자문학, 월북작가의 범주로 자리매김해 온 유진오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³⁵⁾ 이광수 문학이 한국문학사의 정전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친일문학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의 문학적 평가, 즉 『무정』(1917) 등의 작품이 한국근대문학사에 미친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국 근대정신사에 있어서도 이광수를 빼놓고 계몽주의, 민족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한문학사와 결은 다르지만 북한문학사³⁶⁾와 중국의 한국문학사³⁷⁾에서도 이광수 문학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어찌되었든 장혁주가 남한문학사 모두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는 의문은 장혁주 만큼이나 일본어 창작이 많았던 김

- 35)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1)』에서는, 계급 문단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진보적인 성향의 작품 활동을 실천한 동반자작가로 이효석과 함께 유진오를 언급하고 있다(민음사, 2008, 379~378쪽).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월북작가’의 명단에 유진오를 올리고 있다(민음사, 2007, 379쪽).
- 36) 북한문학사의 이광수에 대한 평가는 시기별로 변곡점이 있는데, 오테호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부르조아 반동작가’로 비난 일색이던 방식에서 1980년 ‘부르조아 계몽문학’의 작가를 거쳐 1990년 이래로 ‘근대 소설 양식의 확립’과 ‘소설의 개척 공로’까지 함께 인정받고 있는 비난의 대상에 불과하던 부르조아 반동작가에서 문학 공로를 인정받는 부르조아 계몽주의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오테호,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70~171쪽). 또한, 『무정』의 평가에 있어서도 ‘부르조아 계몽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당대 사회 문제를 비판한 시대정신과 새로운 문체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다만, 『무정』보다는 『개척자』를 높이 평가하며, 이 점은 남한문학사와의 두드러진 차이라고 할 수 있다(황정현,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95~396쪽).
- 37) 예컨대, 김병민의 경우, “1930년대 말~40년대 초엽에 있어서는 친일배후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함으로써 조국과 민족 앞에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김병민, 앞의 책, 65쪽)라며 북한문학사의 논조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고, 김영금 역시, “오로지 반봉건적인 새로운 문화만 건설하면 당대의 정치, 경제도 날로 문명세계를 향하여 진보하리라는 낙관적 전망”에 매몰되어 있으며, “의식의 불구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친일선동의 육된 자리”(김영금, 앞의 책, 58쪽)에 앉게 되었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랑의 (재)평가에 대한 시라카와의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천마』(1940)를 위시해 식민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작품에 담은 김사랑에 대한 평가도 한국문학사에서 배제되어 오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김사랑이나 장혁주나 작가적 출발이나 문학 발신의 거점이 전적으로 일본이었으며, 대부분이 일본어로 창작되어 한국 문학사의 지형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것에서 찾을 수 것이다.³⁸⁾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가 장혁주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독 장혁주 문학이 “거의 말살당한채로” 한국문학사의 정전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시라카와의 주장은 그대로 일본문학사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라카와 스스로도 장혁주 문학의 자리를 ‘친일문학’의 자장이 아닌 ‘일본어 문학’의 자장으로 옮겨 놓은 것처럼, 장혁주 문학은 한국 문학사보다 오히려 일본문학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일본어 창작으로 향해간, 혹은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각기 다른 장혁주와 김사랑, 이석훈, 김용제 등을 동일한 ‘일본어 문학’이라는 자장 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적어도 「발자취」의 기술에서는 그것이 노골적인 국책 선동의 글쓰기든 우회적인 글쓰기든 구분 없이 일본어로의 창작은 ‘친일’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혁주와 마찬가지로 이석훈에게서도 ‘친일문학’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주인공=작가의 내면을 따라가는 데에 충실하고자 하며, “조선어 발표기관이 격감한 가운데 일본어 표현력이 있는 문인은 이광수 이하 많은 작가가 일본어로도 작품을 썼”으나, “거꾸로 일본어 실력이 없는 작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357쪽)라는 기술에 머물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장혁주를 비롯한 친일문인들의 위치를 ‘일본어 문학’의 자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친일’의 혐의로부터 비껴가게 했지만, 그 비껴간 자리에서 ‘일본어 문학’ 자장 안에 분명한 형태로 존재했던 식민지

38) 김사랑 문학은 1973년에 김달수, 김석범, 안우식, 이희성, 임전혜에 의해 『金史良全集』(全4卷, 河出書房新社)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김재용, 광형덕에 의해 『김사랑 전집』(전5권, 역락, 2016)이 번역되어 나왔으며, 김사랑 문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시기 문학을 배제하고 철저히 자국문학 중심으로 기술해 온 전후 일본문학사의 편협성 내지는 성찰력 부재라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하였다. 분명한 것은, 한일 양국의 일국사 중심의 ‘문학사’라는 ‘정전’은 ‘친일문학’ ‘친일문학자’들이 설 자리를 애초부터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며, 시라카와의 문학사가 애초부터 ‘친일문학’ 혹은 ‘암흑기 문학’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정전’화 된 한국의 ‘친일’ ‘문학사’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가능성(예컨대 ‘지일’이라는 프레임)을 열어 두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혁주 문학을 위시한 친일문학에 대한 시라카와의 시각은 논쟁의 소지가 없지 않다.³⁹⁾

V. 결론

지금까지 일본에서 저술된 두 권의 한국문학사 기술을 중심으로 항일문학과 친일문학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의 물꼬를 튼 오무라 마사오와 사에구사 도시카쓰, 그리고 뒤이은 시라카와 유타카의 인식의 차이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II 장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친일문학에 대한 각각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오무라의 경우, 역사적·윤리적 책임감, 사에구사는 국외자 시선, 시라카와는 선의의 해석자로 분류·정의할 수 있다. 그 특징만 간략하게 언급하면, 우선 오무라 마사오의 경우는, 이광수나 장

39) 장혁주 문학을 위시한 친일문학에 대한 시라카와의 시각 혹은 포지션을 문제 삼은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곽형덕과 김학동의 연구가 있다. 시라카와의 저서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을 번역한 바 있는 곽형덕은, 이 책에서 시라카와는 “장혁주의 위치를 협력과 저항 사이에서 부단히 찾아내려 하면서도, 선불리 장혁주가 일본제국에 협력했다는 기존의 논리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경계들(ambiguous borders)을 훑으면서 단호한 평가들(decisive judgments)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앞의 논문, 408)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김학동은 같은 책에 대해 “일본어 작품의 분류 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작가의 친일적 행적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앞의 책, 59쪽)를 드러내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혁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고, 김용제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프롤레타리아문학 업적 면은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김종한에 대해서는 그의 작품세계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는데, 9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작품을 발굴·수록하여 간행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나아가 친일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⁴⁰⁾ 무엇보다 운동주 문학을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부분은 대부분의 일본인 연구자들이 운동주의 항일(저항)적 측면을 간과해 온 것과 크게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서술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항일문학이나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의 한국 학계의 평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방식의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하나는, 한국 학계에서는 도외시 되었던 김종한, 이석훈 등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랐고, 다른 하나는, 한국 학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광수의 친일적 요소는 크게 중시하고 있지 않거나, 기술하더라도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이광수의 자기변명을 그대로 추수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육사나 운동주의 기술에서 항일(저항)의 문맥을 소거하는 방식 또한 눈에 띈다. 이 부분은 운동주 문학의 저항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발굴, 소개해 온 오무라 마스오와 변별되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민족의 시’가 아닌 ‘연애의 시’로 해석하고, 운동주의 시에서 저항의 측면보다 보편적 의미의 ‘조국’을 그리는 마음에 방점을 둔 시라카와의 시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문맥을 완전히 소거한 ‘친일’ 문학의 독해가 갖는 논리적 비약과 한계 또한 사에구사 문학사 기술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40) 예컨대 전집 간행사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 그러하다. “「조선 옷을 입고 조선의 온돌에서 자더라도 훌륭한 황민(皇民)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고자 하는 결의표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일본이 전통적 한복(韓服)은 경제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반과 몸빼를 강요하고, 온돌은 자칫 게으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히바치(火鉢·일본식 화로)를 강제한 것인데, 이에 대한 아슬아슬한 저항과 거부라고 봐야 할 것이다.”(『金種漢全集』의 刊行にあたって, 『金種漢全集』, 앞의 책, 2쪽)

마지막으로 시라카와 유타카의 문학사 기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탁월한 일본어 실력을 갖춘 작가나 일본어 창작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장혁주, 김사랑, 이석훈, 김용제 등을 동일한 ‘일본어 문학’이라는 자장 안에 녹여냄으로써 각기 다른 친일의 내적 논리를 희석시켜 버리는 한계를 노정한다. 친일문인들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해)의 측면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장혁주에 대한 시라카와의 남다른 애정은 그의 발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염상섭과 장혁주를 ‘한국근대 지일 작가’라는 범주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도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낯선 방식이며, 사에구사와 마찬가지로 이석훈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로써 세 연구자들의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에 제시한 친일의 (재)평가 부분에서 인식이 겹쳐지는 작가군이 있다. 김종한과 이석훈에 대한 평가 부분이 그것인데,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던 오무라와 사에구사가 김종한에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석훈에 대해서는 사에구사와 시라카와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작가에게서 이광수, 장혁주, 김용제 등 노골적인 친일 협력 문인들과는 다른 내면을 발견했으리라는 점이다. 사에구사의 표현을 빌자면, “눈에 거슬린다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저항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친일문학”(98쪽) 정도가 될 터인데, 이는 친일협력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의중을 간파하기 힘들다.

김재용의 최근의 저작 『풍화와 기억』(2016)은 이 점을 풀어가는 데에 매우 유효한 논점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친일협력 문학의 4가지 유형, 즉 문화주의적 동화형 친일협력(이광수), 혈통주의적 동화형 친일협력(장혁주), 속인주의적 혼재형 친일협력(유진오), 속지주의적 혼재형 친일협력(최재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본 논의의 친일의 (재)평가 작가군과 겹치는 영역은 속인주의적 혼재형 친일협력과 속지주의적 혼재형 친일협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본 논의가 다 풀어내지 못한 친일문학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미세한 입장의 차이, 특히 그 차이가 확인했던 오무라 마스오와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김종한 문학을 둘러싼 인식의 접점을 살펴보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三枝寿勝, 『韓国文学を味わう』,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
- _____, 『狀況과 文學者の 姿勢-日帝末期 韓國文學의 경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_____,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들북, 2000.
- 白川豊, 「朝鮮近代文学の歩み」, 『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 九州産業大学 出版会, 1997.
- 시라카와 유타카, 광형덕 율김,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 _____, 『한국근대 知日작가와 그 문학연구』, 깊은샘, 2010.
- 오무라 마스오, 광형덕 율김, 『한국문학과 그 주변』, 소명, 2017.
- 오무라 마스오, 심원섭 율김, 『사랑하는 대륙이여-시인 김용제 연구』, 소명, 2017.
- 藤石貴代・大村益夫・沈元燮・布袋敏博, 「金種漢全集の刊行にあたって」, 『金種漢全集』, 緑蔭書房, 2005.
- 김병민, 『조선문학사-근현대부분』, 연변대학출판사, 1994.
- 金英今, 『韩国的文学』, 北京大學出版社, 2009.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7.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8.
- 설성경 외, 『세계 속의 한국문학』, 새미, 2002.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 1966.
- 김윤식, 『내가 읽고 쓴 글의 갈피들』, 푸른사상, 2014.
- 김재용, 『풍화와 기억』, 소명, 2016.
- 김학동, 『장혁주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국학자료원, 2008.
- _____, 『장혁주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역락, 2011.
- 심원섭, 『일본 유학생 문인들의 대정・소화 체험』, 소명, 2012.

2. 논문

- 이선이, 「중국에서 저술된 한국근현대문학사의 문화횡단적 실천」, 『비교문화연구』 4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역사적 반성 및 협동 연구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 곽형덕, 「경계의 모호함과 평가의 단호함을 묻다-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사이間SAI』 9, 2010.
- 윤송아, 「한국문학사를 가로지르는 언어·문화·역사의 계기들」, 『비교문화연구』 4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오무라 마스오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김명인, 「친일문학 재론-두 개의 강박을 넘어서」,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회, 2008.
- 오태호,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 황정현, 「북한 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Literature Shown in
Japanese Korean Literature History

Son, Jiyoun

This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anti-Japanese literature and pro-Japanese literature skills among Korean literary history written in Japan, and to observ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 surrounding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literature.

Analyzed texts are “Taste Korean Literature” by Saegusa Dosikatsu and “The Footsteps of Modern Literature of Chosun” by Shirakawa Yutaka, the earnest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ian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writers, and though there’s no overall written history of literature, they were seen through with the perspective of Omura Masuo, at the forefront of Japanese researcher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The main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

First, In Korean literary history by Japan, the frame “pro-Japanese literature” is clearly embedded. It is clearly distinctive from the aspect of China or North Korea, and though it follows the narration system of South Korean literature, it also forms the breaking (turning) point of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literature relative to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literature.

Second, even if it follows the narration system of South Korean literature, that question was constantly raised on existing Korean academic evaluation of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literature,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reading were practiced.

For example, Korean academic circles highly regard literature of writers such as Kim, Jong han or Lee, Seok hoon, while Korean academics do not

place much importance on Lee, Gwang Soo's pro-Japanese elements that are important.

The third point is that generous marks are credited to writers with outstanding Japanese or to Japanese creative writing.

As a result, they dissolve internal logic in different pro-Japanese collaborators such as Chang, Hyuk Ju, Kim, Sa Ryang, Lee, Seok hoon, or Kim, Yong Jae by melting the same "Japanese literature" in a cage.

The last point is reading different inner thoughts of Kim, Jong-han or Lee, Seok-hoon unlike outspoken pro-Japanese collaborators such as Lee, Gwang soo, Jang, Hyuk Joo or Kim, Yong je.

These points require more in-depth analysis, and will be continued in follow-up tasks.

Key Words : Omura Masuo, Saegusa Dosikatsu, Shirakawa Yutaka, anti-Japanese literature, pro-Japanese literature, History of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